

진료 준비 놀이 카드

병원에서 만날 순서를 짧게 연습하고, 사실대로 말하며, 아이가 해낸 행동을 알아봐요.

5분 병원놀이 사용법

- 1 오늘 만날 카드만 3~5장 고릅니다.
- 2 인형이 먼저 환자가 되고 아이가 의사 역할을 해 봅니다.
- 3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은 병원에 확인해 카드를 바꿔 말합니다.
- 4 아이가 멈추고 싶으면 놀이를 멈추고, 같은 순서를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.

거짓말 없는 한 문장 공식

무엇을 해요 +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+ 누가 어떻게 도와요

“귀를 잠깐 볼 거야. 낫설 수 있어. 네가 원하면 내 무릎에 앉을 수 있어.”

“따끔할 수도 있어. 손을 잡고 같이 천천히 숨 쉴게.”

피할 말 “하나도 안 아파” “울면 안 돼” “말 안 들으면 주사 맞아”

진료 뒤에는 결과보다 행동을 칭찬해요

“무서운데도 어디가 불편한지 말했구나.” “내 손을 잡고 숨을 쉬었구나.”

울었어도 실패가 아닙니다. 다음에 도움 될 한 가지를 아이와 고릅니다.

긴급할 때는 놀이보다 도움 요청이 먼저예요

숨쉬기 매우 힘들, 청색증, 깨우기 어려움, 처음 하는 경련 등은 기다리지 말고 119 또는 응급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. 이 자료는 진단·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
진료 순서 카드 1~4

점선을 따라 자르거나 종이째 가리키며 접수부터 진찰까지 순서를 맞춰 보세요.

1 접수해요 순서 어른의 말 “먼저 이름을 말하고 기다릴 거야.” 함께 해요 인형 이름을 말하고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 접수 놀이를 해요.	2 기다려요 순서 어른의 말 “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. 무엇을 가져갈까?” 함께 해요 작은 책이나 익숙한 물건 하나를 아이가 직접 골라요.
3 재어 봐요 순서 어른의 말 “키와 몸무게를 재는 곳에 올라갈 거야.” 함께 해요 바닥 선에 서 보고 숫자를 읽는 척해요. 인형도 차례로 재요.	4 살펴봐요 예고 어른의 말 “눈·귀·입을 보고 가슴 소리를 들을 수 있어.” 함께 해요 종이컵을 청진기처럼 대며 “잠깐 댈게요”라고 먼저 알려요.

점선을 따라 자르면 A6에 가까운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

진료 순서 카드 5~8

검사 여부는 확인하고, 가능한 선택을 주고, 진료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칭찬해요.

5 검사는 확인해요 정직 어른의 말 “검사나 주사가 있는지는 선생님께 물어보고 알려 줄게.” 함께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, 병원에 물어볼 질문을 한 가지 정해요.	6 내가 골라요 선택 어른의 말 “내 무릎과 의자 중 어디가 편해? 보고 싶어, 돌아보고 싶어?” 함께 해요 가능한 선택 두 가지를 주고 아이가 손가락으로 고르게 해요.
7 끝을 알려요 마침 어른의 말 “선생님께 끝났는지 물어볼게. 이제 옷을 입을 차례야.” 함께 해요 인형에게 “다 했어요”라고 말하고 가방을 챙기는 장면을 해요.	8 해낸 걸 찾아요 칭찬 어른의 말 “무서운데도 손을 잡고 네 마음을 말했구나.” 함께 해요 울지 않은 결과 대신 아이가 한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말해 줘요.

점선을 따라 자르면 A6에 가까운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